

한수 모의고사

파이널 7 회

85 점

[89 / 84 / 78]

[독서 1 한 개 애매하게 답한거 틀리고 <보기>문제 찍고 틀림]

[독서 2 별표 친거 하나 틀리고 <보기>문제 찍고 틀림]

[독서 3 거의 찍다시피 한거 틀리고 <보기>문제 찍고 틀림]

PLANS BEFORE TEST

- 독서 풀이법 3 원칙
 - >첫문단 근거로 문단의 화제잡고, 화제 간 유기적 연결
 - >흐름 능동적으로 구성해가기 (어색한 거 인식)
 - >호기심!!!!!!
- 문학 선지 판단
 - >허용가능성 위주 판단, <보기>를 대전제로.

PERFORMANCES

문학	화작	문법	마킹	>	독서 1	독서 2	독서 3	마킹	
30-	12+	6+	1		15	10	6	1-	

첫 번째 문학에서 멘탈 와장창 나가고 15 분 걸렸다. 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 의미있는 시험이었다.

화작

12+ (0)

문법

6+ (0)

빠르게 화작으로 넘어가서 쉽게 끝내고, 문법으로 넘어갔다. 11 번을 풀 때 3,4,5 번 선지를 지우고 1,2 번 중 고민을 했다. 1 번 선지는 근거를 못 찾아서 남겨뒀고 2 번 선지는 애매해서 남겨뒀다. 계속 고민을 하다가 2 번 선지 해석을 내 마음대로 이걸 이래서 아니지 않나...? 하는 식으로 체크를 하고 1 번 선지를 한번 만 더 지문에서 찾아봤는데 웬걸. 단순한 일치로 1 번이 틀렸었다. 빠르게 1 번으로 답을 바꾸고 넘어갔다. 문법 장지문에 생소한 개념이 나왔다면 결국 사실판단 문제로 나온다. 판단이 안되면 지문으로 돌아가자.

파본 검사를 할 때 제대로 본 연계작품이 한 개도 안보여서 1 차 당황을 했다.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인드로 첫 번째 문학으로 들어갔다.

14min

첫 번째 문학은 6 평을 반영한 듯했는데, 현대소설 <동의보감>을 희곡과 함께 제시한 SET 였다. 앞부분을 읽다보니 작품을 본 기억이 났는데 다른 부분이라서 아쉬웠다. 처음 본 부분이여서 <보기> 먼저 읽고 정서/인물관계를 바탕으로 쪽 읽어나갔다. 그리고 희곡은 장소/정서/인물관계를 체크하고 지시어를 주의깊게 읽으며 쪽 읽어나갔다. 21 번을 푸는데 1~5 번 선지까지 다 지워져서 뭐지...하고 다시 1 번으로 돌아왔다. PIRAM 교재에서 배운 상세한 내용일지껏거니 하고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다시 판단했다. 1 번 선지에서 바로 걸려져서 체크하고 넘어갔다. 문제는 23 번이었다. 지문 자체가 길어서 독해하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 현대소설 일부분과 희곡 전체를 비교하는 문제였다. 대충 현대소설을 바탕으로 희곡이 제작되었다는 가정 하에 사실관계를 물었다. 그런데... 한번 더 1~5 번 선지가 모두 지워졌다. 바로 방금에도 이랬는데 또 이런다라... 심리적으로 타격이 크게 왔고 내용일치 문제인지라 모든 지문을 대상으로 다시 파악해야 했다. 오답 근거는 현대소설에 있었는데, 현대소설에서 대사는 주로 큰따옴표들이 연이어서 나오기에 누가 말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거기에 딱 걸린거였다. 대안으로는, 인물관계 파악을 할 때 누구의 대사인지까지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겨우 풀고 나니 14~15 분이 지나가고 있었고 6 문제짜리도 아닌데 5 문제짜리에서 15 분이나 썼다는 거에 멘탈이 살짝 나간 채로 다음 문학으로 넘어갔다.

6min

두 번째 문학은 제목만 봐선 기억이 안났는데 두세줄 읽고나니 대충 기억이 났다. 얘는 <보기>를 대전제로 1 차 판단을 하니 그 선에서 걸려져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문제가 엄청 헛갈렸다. 31 번은 두 선지가 헛갈렸고 32 번은 한 번 더 1~5 번이 다 지워졌다. 엄청 고민을 하다가 31 번 3 번 선지에선 원래 '주말'이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맞으니까 맞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5 번 선지로 했다.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문구는 '시'라면 99% 허용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마도 1%에 해당하지 않으나 싶다. 그리고 답지를 보니 판단한 근거가 적절했다. 흠... 32 번은 참외,호박을 대상으로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라고 판단해서 '음~ 식구=가족 이니까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어머니의 다짐이 드러나있다는 건 당연히 허용가능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확실히 맞아서 '어... 헌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체크하고 넘어갔다. 후에 답지를 보니 참외와 호박은 가족이 아니므로 오답이라....라는 식으로 나와서 당황했다. 그렇게 겨우 두 번째 지문을 끝내니 맵소사 정각이 되어있었다.....

4-min

세 번째 문학은 '면앙정가'였다. <보기>문제는 <보기>를 전제로 선지판단을 쉽게 했고 나머지문제도 쉽게 풀긴 했는데 '오늘이 부족커니 내일이라 유여하랴'의 뜻 판단이 정확히 안됐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해당 구절에서 쿨내가 진동해오는 것을 고려해 '자연의 흥취를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선지를 허용할 수 있었다.

6min

마지막 문학은 '장경전'으로, 내용이 쉬워서 빠르게 인물관계/정서/장소변화 파악하고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었다.

문법까지 다 풀고 시간을 보니 31 분이 남아있었고 마킹을 빠르게 하고 30 분 남겨둔 채로 비문학을 들어갔다.

15min

3 번째 지문을 먼저 봤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림을 보고 이감에서 여러 본 유형이라 쉽게 풀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그런거 같은데 오산이었다. 다음 모의부턴 '4-6-5'문제 순서대로 풀 예정이다. Anyway,, 요 지문은 부호 관련 지문이었다. 정보처리에 있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허프만 부호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었는데 부호화 과정에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단순 활용 문제에서 전사했다. 내용일치문제는 1,2,3,5 번이 확실히 아니고 4 번은 극단적인 선지여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38 번 문제는 9 평에서 행정입법 지문 출제방식과 유사하게 낸 거여서 그 때 생각해둔 방법인 '서술형처럼 해결한다'에 입각해 풀어서 잘 해결한 것 같다. 어쨌든 단순활용문제에서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시간만 날리다가 15 분이나 투자하고 넘어가는데 결국 단순활용문제도 틀리고 짝은 <보기>문제도 틀렸다...

10min

두 번째 지문은 6 문제짜리로 택했다. 아무래도 6 문제를 마지막에 두는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돼서 그랬는데 괜찮은 선택인 거 같다. 요 지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에 대해 비판적인 후대의 철학을 제시했다. 철학자들도 9 평 예술지문 반밖에 안되고 이항대립, 철학자간 대립구도를 파악하며 읽으니 비교적 글이 잘 읽혔다. 나머지 4 문제는 쉽게 풀었는데 27 번, 'ㄱ에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는 것'문제에서 또 한번 1~5 번 선지가 다 지워졌다. 실모 한 개를 풀면서 벌써 4 번째?로 이래버리니 충격을 받았다... 고민을 하다 도저히 모르겠어서 찍다시피 하고 넘어갔다. 시간은 7 분가량 남았어서 마킹 없이 일단 마지막 지문으로 갔다. (미친 짓이었던 것 같다. 다음부턴 무조건 이 때 마킹하도록 한다.)

6min

마지막 지문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대해 다룬 지문이었다. 시간도 부족하고 과정이 복잡하게 제시돼서 결국 끝까지 고민하다 찍은 문제도 틀리고 넘긴 <보기>문제도 틀렸다.

PLANS AFTER TEST

최종적으로 독서 3 지문 각각 2 문제씩 틀려서 85 점(2 컷)을 맞았다. 문학은 역시나 연계지문 보강학습이 필요할 거 같고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좀 더 해야할 것 같다.

-(소설,희곡 복합 지문 독해) 처음 본 부분이어서 <보기> 먼저 읽고 정서/인물관계를 바탕으로 쪽 읽어나갔다. 그리고 희곡은 장소/정서/인물관계를 체크하고 지시어를 주의깊게 읽으며 쪽 읽어나갔다.

-(문학 1~5 다 지워졌을 때 해결방안)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다시 판단했다.

-(소설을 읽을 때 대사만 계속 나오는 부분 독해) 대안으로는, 인물관계 파악을 할 때 누구의 대사인지까지 제대로 파악해야할 것 같다.

-(고전시가 애매할 때 작품 분위기에 근거한 판단)'오늘이 부족커니 내일이라 유여하랴'의 뜻 판단이 정확히 안됐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해당 구절에서 쿨내가 진동해오는 것을 고려해 '자연의 흥취를 누리기에 여념이 없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선지를 허용할 수 있었다.

-(문법 장지문 생소한 개념문제 해결) 문법 장지문에 생소한 개념이 나왔다면 결국 사실판단 문제로 나온다. 판단이 안되면 지문으로 돌아가자.

-(비문학에서 '이유'문거나 '부합하는 진술'짜서 낼 때 해결법) 38 번 문제는 9 평에서 행정입법 지문 출제방식과 유사하게 낸 거여서 그 때 생각해둔 방법인 '서술형처럼 해결한다'에 입각해 풀어서 잘 해결한 것 같다.

-(마킹 타이밍) (미친 짓이었던 것 같다. 다음부터 무조건 이 때 마킹하도록 한다.)

